

# 희망

2015 AUTUMN



저축은행



## SBI ISSUE

[SBI저축은행 신임 대표이사 임진구 대표 인터뷰]

## 나는 SBI인이다

[오토론 TFT 유재준 부장의 장애물 레이스 도전기!]

## Healing Time

[한 땀 한 땀 마음을 꿰다, 가족 명함지갑 만들기]

## 달콤한 나의 가족

[김호중 차장 가족, 제주도로 유쾌한 여행을 떠나다!]

## Culture Blog

[보기만 해도 오감이 짜릿짜릿! 눈이 즐거운 음식 영화들]

마음이 푸근한 가을,  
〈희망〉을 통해 들려준 SBI인들의

# 말말말



SBI저축은행 신임 대표이사 임진구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구성원들과의 협업, 소통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나 혼자만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준 부장(오토론 TFT)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가짐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고비를 맞닥뜨렸을 때의 태도, 그것이 나를 일으키거나 무너뜨립니다.”



김대중 부장(지점관리부)

“지점과 지점관리부를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부서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SBI저축은행 파이팅!”



홍석진 주임(IB2부)

“시간적으로도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회사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발전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SBI저축은행에서 근무한 4개월 동안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세리 사원(채권관리2부)

“지금의 저보다 1년 후, 2년 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세계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SBI저축은행에서, 첫 마음, 첫 각오를 잊지 않고 매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SBI저축은행 종로지점

“여러모로 환경이 좋아졌고 기대치 또한 높아졌으니 눈높이에 맞는 실적을 내야겠지요. 또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도 잊지 않겠습니다. SBI저축은행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동현 지점장(종로지점)

“저희 지점 최고의 장점은 하나 된 팀워크죠. 구성원 개개인의 인성이나 실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팀워크로 최적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박인성 주임(경영관리부)

“오늘 친구 따라 제대로 온 것 같네요. 완성된 명함 케이스만 보면 그저 우아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은 결코 우아하지 않아요. 도구들도 투박하고, 칼질에, 망치질에, 사포질까지. 그래도 차분히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김호중 차장(NPL부)

“첫째 기림이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며 학원이며 바빠서 통 시간 별 여력이 없었네요. 여행을 참 좋아하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마음 가볍게 놀러 나온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 “넉넉한 마음을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가을”

선선해진 날씨에 기분 좋은 요즘, SBI저축은행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신임 대표이사가 된 임진구 대표의 소식인데요. 가을호 〈희망〉의 테마처럼 큰 뜻을 ‘품고’ 새롭게 출발하는 임진구 대표와의 만남에서 회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꿈을 ‘품고’ SBI저축은행에 동지를 둔 신규 직원들의 이야기와 동물농장으로 떠난 사우 가족들의 나들이까지, 이 계절만큼이나 다채롭고 풍요로운 이야기를 가득 담은 가을호 〈희망〉, 지금 시작합니다!

### SBI저축은행 웰진형 사보 “희망”

- 발행일 : 2015년 10월 15일 • 발행인 : 나카무라 히데오, 임진구 • 발행처 : SBI저축은행 홍보부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센터원빌딩 동관 9층 • 담당 : SBI저축은행 홍보부 김원준(02-3416-6235)
- 기획 및 디자인 : 디자인정글㈜ • SBI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438호(2015.10.13)



Theme Talk [일상을 바꿀 한 수, 갯잎 뒤집기] • 04

### 진화하는 SBI

SBI ISSUE [SBI저축은행 신임 대표이사 임진구 대표 인터뷰] • 08

SBI 희망 NEWS [분기별 SBI 뉴스 모음] • 12

나는 SBI이다 [오토론 TFT 유재준 부장의 장애물 레이스 도전기!] • 18

### 소통하는 SBI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희망을 품고 동지를 둔 신규 직원들] • 24

SBI Talk Talk [Lovely My Pet!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 26

부서 탐방 [새롭게 단장한 종로지점, 화기애애한 우리 지점에 놀러오세요!] • 28

Healing Time [한 땀 한 땀 마음을 껴다, 가족 명함지갑 만들기] • 32

달콤한 나의 가족 [동물 마니아 김호중 차장 가족, 제부도 유쾌한 여행을 떠나다!] • 36

SBI Hot Place [올 가을, Fall in Coffee!] • 40

직장생활 솔루션 [업무 효율 200%! 정리의 법칙] • 42

### 함께하는 SBI

금융가이드 [똑소리 나는 '개인 신용등급' 관리 비법] • 46

Culture Blog [보는 것만으로도 오감이 짜릿짜릿! 눈이 즐거운 음식 영화들] • 48

행복 릴레이 • 50

Break Time • 51

# 일상을 바꿀 한 수, 깻잎 뒤집기

## #

넉넉함을 품은 가을호 <희망>의 테마는 '품다'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것을 비틀어보고 의문을 품을 때 또 다른 길을 발견하고는 하는데요.

삶의 경험을 넓혀줄 '의문 품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느 날 여럿이 고깃집에 갔다. 깻잎에다가 고기를 한 점 올려놓으려는데 옆자리 분이 말했다. 깻잎을 뒤집어서 싸 먹어 보라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깻잎의 앞면, 즉 비교적 매끈한 면에다 고기를 놓고 싸 먹는다. 그런데 이분의 지론은, 그렇게 하면 깻잎의 뒷면, 즉 털이 부슬부슬한 면이 씹의 결면이 되어 입안에 닿게 되므로 식감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깻잎을 뒤집어 먹으면 매끈한 면이 결면이 되어 한결 거슬리지 않게 된다. 그분 말씀을 따랐더니 과연 그러했다. 깻잎을 뒤집어 싸먹어 볼까? 이 간단한 의문이 한결 나은 방법을 발견해낸 셈이다. 그 후에는 다시 습관적으로 앞면에다 고기를 놓게 되었지만, 그 경험은 내게 인상적이었다.

### 깻잎을 뒤집듯 의문을 품어라



뜬금없이 웬 깻잎 이야기인가 하면, 일상에서 의문을 품는다는 것이 그리 꼭 거창한 일만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해오던 방식에 의문을 품고 다른 방식을 시험해 본다는 것은 좋은 자세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

김밥은 김 위에다 밥을 펴서 올린 뒤 이런저런 재료를 넣고 돌돌 말아서 만든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의 안팎을 뒤집어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김 위에 밥을 펴서 올린 다음 그것을 뒤집어서 재료를 넣고 돌돌 만 것이다. 그러면 김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흰 밥이 바깥 면으로 나온다. 결면의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니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이른바 누드 김밥의 탄생이다.

속옷을 뒤집어 입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그렇게 하면 태그와 솔기가 바깥쪽을 향하게 되므로 몸에 닿는 쪽에는 거슬릴 게 없다. 나는 깻잎의 식감이나 속옷의 솔기에 그다지 민감한 편이 아니

지만, 그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뭐 어쩐가. 속옷은 누가 보는 옷도 아니고 단지 나만을 위한 옷인데. 그런데 누가 보기 때문에 옷을 뒤집어 입는 경우도 있다. 어떤 패션니스타들은 일부러 티셔츠나 재킷을 뒤집어서 솔기나 안감이 밖으로 나오도록 연출하고는 한다. 보이는 결면은 엄숙하지만 숨겨진 안감은 화려해서 살짝 옷깃이 벌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섹시함이 느껴지는 옷도 있고, 아예 안팎을 모두 결면으로 만들어 뒤집어 입을 수 있게 한 '리버서블' 옷도 있다.

궁전은 보통 권세를 과시하는 화려한 건축물이다. 그런데 내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화려한 궁전은 수수한 외양을 하고 있다. 바로 스페인의 알함브라 궁전이다. 겉에서 본 알함브라는 그저 밋밋하고 푸석한 직선의 건축물일 뿐이다. 그런데 그 무뚝뚝한 벽체 안쪽으로 들어서면 별세계가 펼쳐진다. 입이 떡 벌어지는 정교한 타일들, 우아한 아치와 기둥, 금으로 치장한 천장, 무결하게 아름다운 정원과 곳곳에 놓인 섬세한 분수. 안쪽에 지상의 천국을 들여놓은 알함브라는 바깥쪽을 향한 치장에 무심하다. 생각을 뒤집은 그 표리부동함이 알함브라를 더욱 관능적이게 한다.

### 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세상 보기



나는 신맛을 잘 견디지 못해서 신김치도 못 먹고 신 과일도 즐기지 않지만, 어찌 보면 신맛의 대표라 할 레몬은 아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과육이 아니라 레몬 제스트, 즉 가장 바깥쪽의 얇은 껍질을 삭삭 벗긴 것이다. 이것을 샐러드 등에 뿌려 먹으면 씹싸름하고 향긋하다. 보통의 과일은 껍질을 벗기고 과육을 취하기 마련이다. 누가 처음 레몬의 껍질을 살살 벗겨서 맛볼 생각을 했을까? 안쪽은 먹는 것이고 바깥쪽은 버리는 것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자, 나는 지금까지 안팎의 개념을 뒤집은 여러 예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유연하게 바꾸어보고자 했다. 이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을 살짝 뒤집어 보면 조금은 다른 세상이 열린다. 이게 꼭 걸어야 할까? 이게 꼭 안이어야 할까? 이것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될까? 깻잎 한 장 뒤집듯이 가볍게, 생각을 뒤집어 의문을 품어 보자.

# BEYOND SAVINGS BANK >>>

진화하는 **SBI**

열정을 '품고' 한 번 더 도약! SBI저축은행의 오늘과 내일



**SBI ISSUE**

SBI저축은행 신임 대표이사 임진구 대표 인터뷰



**SBI 희망 NEWS**

분기별 SBI 뉴스 모음



**나는 SBI사이다**

오토론 TFT 유재준 부장의 장애물 레이스 도전기!



## SBI저축은행 신임 대표이사 임진구 대표 인터뷰

지난 9월 30일 SBI저축은행은 이사회에서 IB본부장인 임진구 전무를 새 대표로 선임하고 나카무라 히데오, 임진구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한국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인 경영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SBI홀딩스의 방침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한국 금융시장에 정통한 임진구 대표를 선임한 것이다.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한 임진구 대표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SBI저축은행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셨는데, 이제 그 길의 가장 선봉에 서시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SBI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취임한 임진구입니다. 우선 대표이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IB본부장, SBI2저축은행 대표를 맡았던 때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로서 SBI저축은행의 발전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는 CEO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 신임 대표이사로서 대표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SBI저축은행 구성원, 그리고 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Change and Chance(변화하면 기회가 온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독일의 소설가인 장 파울은 '하찮은 변화라도 단조로움이 지속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들이 모여 혁신이라는 큰 변화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 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두 번째, 도전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대표이사라는 직책은 새로운 도전입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준 원동력은 바로 도전정신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SBI저축은행 임직원 여러분도 항상 새로운 것에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아닌 '우리가' 잘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 하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아닌 '우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볼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볼트라도 볼트를 돌려주는 드라이버와 끼울 수 있는 너트가 없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SBI저축은행 임직원 여러분들도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 모두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소통하는 CEO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금융인으로서 대표님만의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오랜 기간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세계 각국을 돌며 금융과 관련된 일들을 경험하고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금융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금융인으로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사람, 네트워크, 현장경영, Servant Relationship(섬김 경영)이었습니다. 금융업은 1, 2차 산업과는 달리 인적자원이 핵심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특히 금융업은 인적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훌륭한 인재 한 명이 무한한 이익을 창출해 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산업보다 사람이 중요한 업이며, 인적자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2013년 IB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 IB본부의 순이익을 600억 원 규모로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현재까지 SBI저축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 점이나, 사업전략 추진 시에 중점을 두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제가 2013년 초 IB본부장으로 취임할 당시 IB본부는 1,700억 원가량의 부실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체율은 20%를 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저축은행의 IB업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IB본부를 이끌며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고객의 돈을 잃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민금융을 책임져야 하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일시적 자금난에 부딪힌 중견 기업들에 투자한 것도 이익 증가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대표이사이자 직장생활의 선배, 삶의 선배로서 많은 SBI인들에게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직원들과의 미팅이나 대화에서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 준비하면 실패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길러 매사에 대응한다면 절대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로서 같이 가는 SBI인’**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구성원들과의 협업, 소통을 통해 발전할 수 있으며 나 혼자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끼·끼·빠·빠(낄 땀 끼고 빠질 땀 빠진다)’**

제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낄 땀 끼고 빠질 땀 빠질 수 있는 선구안이 필요합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우량한 달을 선별할 수 있는 선구안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 한해는 대표님께 다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대표님만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013년도에 SBI저축은행에 합류한 이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해 회계연도에는 약 200억 원의 수익을 올렸고, IB본부가 수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회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자 계획입니다.

또한 항상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직원들의 건강은 곧 조직의 건강으로 연결되며 이는 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지난해만큼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015 회계연도는 6개월에 불과하지만 직전 회계연도에 수익을 올린 만큼 남은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작년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고,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SBI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 안정된 수익 창출원을 만들고 영업수익을 안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 취임 후 많은 분들께서 축하의 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회사의 발전과 수익 창출도 중요한 경영활동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행복한 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회사, 직원들이 건강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회사, 서로를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 NEWS



2015년 가을, SBI저축은행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 🎤 임진구 대표이사 신규 선임



SBI저축은행은 지난 9월 30일 본사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진구 전무 (IB본부장)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나카무라 히데오, 임진구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2013년부터 IB본부를 맡아온 임진구 대표는 우량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 부실 투자자산 정리,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재임기간인 2년 동안 IB본부의 순이익을 600억 원 규모로 끌어올리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임진구 대표는 뉴욕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LG상사 벤처투자팀, LG정유 싱가포르 지사, 홍콩 오아시스 및 퍼시픽 그룹 사 모펀드 대표 등을 거쳐 지난 2013년 SBI저축은행에 합류해 IB본부장을 역임하고 특히 미국, 한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5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오며 글로벌 IB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임진구 대표는 "서민금융을 책임져야 하는 저축은행의 설립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리스크관리, 상품 개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SBI저축은행의 과제이자 목표라고 생각한다"며, "서민금융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 종로지점 이전 및 오픈, 예·적금 특판 시행

지난 8월 3일 SBI저축은행이 영업력 강화와 신규 고객 확보를 위해 기존의 미아지점을 종로지점으로 이전 오픈했습니다.

종로지점 개설과 함께, 신규 고객과 지역 영업기반 확보를 위해 예·적금 특판을 실시했습니다. 300억 원 한도의 정기예금과 100억 원 한도의 정기적금 상품은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으며, 지난 6일 한도가 모두 판매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큰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업계 최초 온라인 주택대출 출시

지난 8월 3일 SBI저축은행이 업계 최초로 온라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SBI온라인주택대출'을 출시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의 'SBI온라인주택대출' 상품은 대출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http://www.sbiapt.com>) 또는 전화(국번 없이 1566-8648)로 이루어져,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방문 수령하는 등 불편이 있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비해 편리하고 신속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 주택담보대출의 번거로운 절차 중의 하나였던 고객의 반복적인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해 온라인화의 핵심적인 단계를 완성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관련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이러한 과정에서 절감된 비용을 금리 인하 등의 혜택으로 고객에게 돌아가게 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온라인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다양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고객의 편의성과 혜택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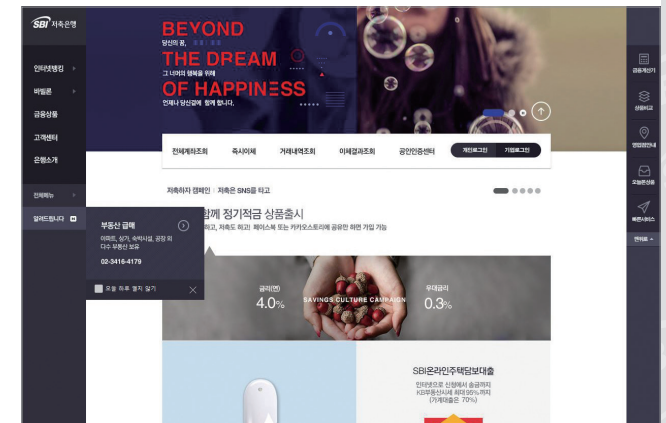
### 신규 케이블TV 광고 론칭

SBI저축은행은 지난 8월 6일부터 신용대출 상품인 바빌론의 신규 케이블TV 광고를 론칭, 방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론칭한 케이블TV 광고는 SBI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인 바빌론 이용의 신속성과 편리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과거 소치올림픽 공약 편, 친구론, 가족론, ATM 결제 편 등 친근하고 재미있는 광고 소재를 통해 대중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지난 10월 12일 SBI저축은행은 기업 홈페이지 및 브랜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 17개의 사이트를 리뉴얼하고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 프로젝트를 통해 저축은행 업계 최초로 멀티OS, 멀티 브라우저를 적용하였으며, 시중 은행 수준의 사용자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모든 사이트에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해 기업 이미지 제고 및 고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더불어 인터넷 뱅킹 화면 UI(User Interface) 및 다양한 편의기능을 추가해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했습니다.





## 🎤 임직원 모두가 소통하는 'SBI 호프데이' 실시

지난 7월 21일 경영진과 직원들이 시원하게 맥주잔을 기울이며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는 호프데이를 가졌습니다. 하루의 업무를 마무리한 저녁 7시경. 한자리에 모인 임직원들은 딱딱한 사무실을 벗어나 맛있는 음식과 함께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즐길 생각에 기대하는 얼굴들이었는데요. 먼저 유재준 부장 외 11명이 소속된 신설 조직, 오토론 TFT에 대한 소개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신규 시장으로의 진출을 이끌고 있는 오토론 TFT의 역할과 부서원 구성, 성과 등에 대한 소개가 끝나자 힘찬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2015년 신규 입사자 11명과 반가운 인사도 나눈 뒤, 나카무라 대표이사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반기 동안의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한 나카무라 대표이사가 “FY14기 순이익 흑자 전환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라고 말하자 순간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나카무라 대표이사는 “아무췌록 초심을 잃지 말고,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계속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라고 기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뒤이은 시간에는 임직원 모두가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경기에 따라 푸짐한 상품이 걸려 있다는 말에 모두들 열의를 불태웠는데요. 맥주 300cc 빨리 마시기, 팔씨름, 닭싸움, 도레미 고음 대결 등 게임을 거칠 때마다 웃음과 박수가 넘쳐났습니다. 또한 사무실에서는 미처 하지 못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때로는 회사 현안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대화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서로 잔을 주고 받을 때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구 직원 간, 또 임원과 직원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낸 호프데이를 마무리하며 참가자 모두 “회사가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저마다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껏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자극이 돼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레이스에 참가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 나 자신을 뛰어넘다! 오토론 TFT 유재준 부장의 장애물 레이스 도전기

스타트라인 앞에 모여든 사람들. 설레면서도 긴장된 표정으로 때를 기다린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출발신호와 함께 경쾌하게 달려나가는 선수들.  
그리고 그 속에 오토론 TFT 유재준 부장이 있다.

## 오랜 훈련을 거듭하며 기다려온 D-day!

오토론 TFT의 모든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유재준 부장은 회사의 유명인사다. 오랜 운동으로 완성한 다부진 몸매로 어딜 가나 눈길을 끌기 때문. 또 그는 못 말리는 운동 마니아로 이름나 있기도 하다. 산악 등반부터 철인 3종 경기, 웨이트 트레이닝과 마라톤까지 각종 스포츠를 섭렵한 전천후 스포츠맨이다.

그런 그가 지난 10월 3일, 새로운 경기에 도전했다. 바로 세계적인 장애물 레이스인 '어반에슬론'이다. 러닝과 피트니스가 결합된 것으로 2.2m의 장벽 넘기와 타이어 로드 건너기, 시멘트 실린더 통과하기 등 험난한 코스를 거쳐야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3,000여 명의 선수가 운집한 서울 월드컵 주 경기장은 빅 이벤트를 앞둔 대회장답게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바람도 선선하고요. 이번 경기에 필요한 근력과 주력은 제가 평소에 웨이트 트레이닝과 마라톤으로 늘 훈련하던 것이라 크게 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제는 폭 자고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뒀어요."

경기장에서 만난 유재준 부장은 열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소감을 밝혔다. 큰 경기를 치를 사람답지 않게 덩덤한 모습. 산에서 바위를 넘거나 협곡 등을 거쳐야 하는 자연 장애물 레이스에 참가한 적은 있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인공 구조물을 상대하는 경기는 처음이다. 첫경험 이기에 떨릴 만도 한데, 그는 시종일관 침착하고 유쾌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시작을 기다리는 그에게서, 오랜 경험과 훈련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계를 대하는 태도

그가 도전하는 'Advance' 부문은 총 11개의 장애물을 통과하는 12km의 코스로, 평소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시도하기 힘들 정도로 난이도가 높다. 하지만 어려울수록 도전의식이 불타오르고 극한을 넘을 때마다 짜릿한 것이 스포츠의 묘미. 다시 한 번 나를 뛰어넘은 뒤 찾아오는 성취감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다. 유재준 부장은 그것이 바로 스포츠와 직장생활이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오랜 세월 동안 직장생활과 운동을 병행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둘이 굉장히 닮아있다는 점이죠. 운동을 하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올라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게 되는 순간, 그것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마음가짐에서부터 달라집니다. 고비를 맞닥뜨렸을 때의 태도, 그것이 나를 일으키거나 무너뜨립니다.”

오토론 TFT를 맡았을 때도 그랬다. 신생팀인 만큼 안정화에 대한 부담감도 컸고, 대내외적으로 기대치가 높아 숨이 턱 막힐 때도 있었다. 하지만 유재준 부장은 상품 론칭을 준비하던 초창기부터 출시 이후 지금까지 모든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왔다. 숨을 고르고 잠시 멈추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묵묵히 뛰고 걸었다. 뒤돌아보면 앞을 막아섰던 산은 어느새 작은 언덕이 돼 있고, 그는 그만큼 더 단단해져 있었다.

유재준 부장은 늘 자신을 단련하며 한계에 초연해지는 법을 배운다. 주변에 흔들리기보다 지금 내 앞에 펼쳐진 길, 내가 넘어야 할 장애물에 집중하다 보면 어려움은 끝나게 돼 있다. 그 뒤의 결과가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다.

##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다시 나를 넘어서다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참가 선수들이 모여든 스타트라인 일대가 시끌벅적해진다. 울룩불룩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냘픈 체구의 여성부터 은발이 성성한 중년 신사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한때를 기다린다. 주변을 둘러보던 유재준 부장은 “저마다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껏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자극이 돼요.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레이스에 참가할 때마다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잠시 숨을 고른 후 신호와 함께 출발! SBI저축은행 로고가 선명한 모자를 쓴 유재준 부장이 힘차게 발걸음을 내디딘다.

이날 그의 기록은 1시간 9분. 바닥을 기고 벽을 오르며 그는 당당히 한계를 맞이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니시라인으로 들어오는 유재준 부장의 얼굴은 누구보다 밝게 빛났다. 한쪽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좋다. 삶이라는 트랙 위에서 또 한 번의 한계를 만나도 그는 다시 넘어설 준비가 돼 있다.



# BEYOND SAVINGS BANK >>>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희망을 품고 동지를 둔 신규 직원들



**SBI Talk Talk**  
Lovely My Pet!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부서탐방**  
화기애애한 증리지점에 놀러 오세요!



**Healing Time**  
한 땀 한 땀 마음을 껴다, 가족 명함지갑 만들기



**달콤한 나의 가족**  
김호중 차장 가족, 제주도로 유쾌한 여행을 떠나다!



**SBI Hot Place**  
올 가을, Fall in Coffee!



**직장생활 솔루션**  
업무 효율 200%, 정리의 법칙

소통하는 **SBI**

사랑을 '품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SBI저축은행 가족들

# 희망을 품고 동지를 든 신규 직원들! 새 얼굴을 소개합니다

기분 좋은 가을 바람과 함께 희망을 품고 SBI저축은행에 첫 발을 내디딘 4인의 주인공.

SBI저축은행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꾸준히 전진해나갈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힘찬 각오를 들어본다.

## “우리 부서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지점관리부] 김대중 부장

1. 지점관리부에서 지점의 여신 및 수신 영업 관리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당행 조직도상 지점관리부 산하에 20개 지점이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점 관리 및 지원에 있어 소홀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직장생활 중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3. 나에게 SBI저축은행이란 '집보다 더 친숙한 공간'이다. 하루 24시간 중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많아서 그런지, 입사한 지 이제 4개월째 되었지만 벌써 회사가 집보다도 더 친숙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4.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稻盛和夫) 회장'의 인생과 경영철학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좋은 인생이 펼쳐지고,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잘 될 리가 없다'는 게 그가 가진 철학으로, 저 역시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여 늘 좋은 생각을 품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 지점과 지점관리부를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부서로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SBI저축은행 파이팅!

## “부서의 발전에 도움되는 일당백 직원이 되고 싶어요”



[IB2부] 홍석진 주임

1. IB2부에서 전환사채 등의 주식 관련 사채, 구조화대출, 수익증권 등의 신규 투자와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업무 특성상 신규 투자건 접수부터 최종 자금집행까지 1건을 마칠 때마다 짜릿한 성취감을 맛보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투자건을 취급한다는 것도 의욕을 불타게 하고요.
3. 나에게 SBI저축은행이란 '삶의 절반'이다. 시간적으로도 하루의 절반을 보내는 회사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발전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SBI저축은행에서 근무한 4개월 동안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4. 최근 금융 자격증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여 후회 남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5. 부서의 목표 달성에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 “배움의 터전, SBI저축은행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토론 TFI] 이채원 사원

1. 오토론 TFI에서 영업 오퍼레이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 아무래도 자산 1위의 저축은행이다 보니 스스로 굉장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우리 회사 광고가 보이면 어깨가 저절로 으쓱해진다잖아?!
3. 나에게 SBI저축은행이란 '배움의 터전'이다. 입사 후 정말 많은 것을 배운 거 같아요. 아직도 익혀야 할 것이 많지만, 그렇게 배우고 고쳐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할 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4. 꿈이나 생각보다는 요즘 살들을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품게 될지 궁금하네요. 하하!
5. 팀의 막내로서 항상 밝은 에너지와 웃음을 잃지 않고 오토론 TFI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 “SBI저축은행에서 채워나갈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채권관리2부] 정세리 사원

1. 채권관리2부에서 팀원들을 든든하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2. 출근하는 데 거리가 제법 있어서 아침잠이 사라졌어요.
3. 나에게 SBI저축은행이란 '사회생활의 밑거름'이다. 지금 이곳에서 쌓는 다양한 경험이 앞으로 제 삶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4. 항상 삶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 생각하며 지냅니다. 걱정이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저보다 1년 후, 2년 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며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어요.
5. 제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SBI저축은행에서, 첫 마음, 첫 각오를 잊지 않고 매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Q1. 자신의 부서와 직무에 대해 알려 주세요.
- Q2. SBI저축은행 입사 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 Q3. 나에게 SBI저축은행이란 [ ]다.
- Q4. 요즘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이나 오랫동안 가슴 속 품어왔던 꿈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 Q5. SBI저축은행에서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재롱이



▲ 지혜



▲ 그레이스

# Lovely My Pet! 나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 강아지처럼 친숙한 동물부터 사막여우 등 이색 동물까지,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일상이 됐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귀여운 나의 가족을 소개하는 가을호 <Talk Talk>, 시작합니다!

에디터\_ 박삿별 / 진행\_ 홍보부 김원준



▲ 달래



▼ 찌루



▼ 구피 1, 2, 3...11

## 자칭, 타칭 '달래 언니'로 불리는 내 리테일컬렉션부 정수진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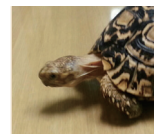
**Pet Name : 달래**

**특징 :** 감정표현이 풍부하고 표정이 많아요!

저희 집에서 저는 '달래 언니'로 불립니다. 그만큼 제가 죽고 못 사는 강아지, 달래는 저랑 무려 15년을 함께한 할머니예요. 사진에서도 보이듯 15년 세월의 폭격(?)을 맞아 이제는 귀도 안 들리고 집에서 쿨쿨 잠만 자지만, 사람들과 오래 살아서 그런지 표정이 꼭 사람 같아 웃음을 줘요. 나이는 속일 수 없어도 아직도 아기 때처럼 간식이랑 산책을 제일 좋아하는 우리 달래.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길진 않겠지만 늘 지금처럼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 느릿느릿, 답답한 거북이가 아니랍니다!

NPL부 김호중 차장 아들 김기림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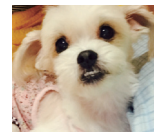
**Pet Name : 재롱이**

**특징 :** 거북이계의 우사인볼트!

사람들은 '애완거북'이라 하면 남생이, 자라 같은 거북이를 떠올리지만 제가 기르는 거북이는 많이 달라요. 바로 육지 거북이죠. 거북이는 느리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재롱이는 상당히 잘 달립니다. 냉혈 동물이라서 감정표현이 없을 것 같다는 편견과도 다르게 배가 고프면 사육상자를 두드리고, 손을 내밀면 올라타기도 하는 귀여운 녀석이에요. 그런데 제가 며칠간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은신처를 못 쓰게 되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네요! 재롱아, 내가 상금 받아서 좋은 집 하나 장만해줄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 내 눈에는 제일 예쁜 우리 강아지

오토론 TFT 장효지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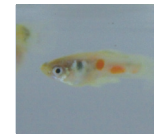


**Pet Name : 지혜**

**특징 :** 최강 동안을 자랑합니다.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은 '지혜'예요. 반려동물 이름을 사람처럼 지으면 오래 산다고 해서 제 이름과 동생 이름의 한 글자씩 따서 지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혜가 태어난 지 벌써 13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생생하고 동안이에요. 지금은 늙어서 코가 조금 까지고 턱도 나왔지만 동그란 눈은 여전히 반짝반짝하죠. 제 친구들은 지혜보고 못생겼다고 놀리기도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동물보다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지혜야, 앞으로 30년은 더 살자♥

## 센터원 11층의 마스코트, 구피 형제들 전략기획부 최문석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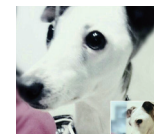
**Pet Name : 구피 1, 2, 3...11**

**특징 :** 귀여운 외모의 무한 번식력!

다들 물고기는 멍청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제 구피들은 저를 알아본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밥을 줄 때면 서로 물려드니까 말이죠. 하하! 삭막한 오피스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분양받아온 이 친구들은 생각보다 적응도 잘하고 쑥쑥 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번식력이 엄청나다는 것인데요. 곧 구피 100호까지 생길 예정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11층으로 오시면 무상으로 분양해드립니다.^^ 애! 곧 새로운 집(큰 수조)으로 옮길 예정이오니 놀러들 오세요~!

## 우리 집 막내 딸, 그레이스!

홍보부 박중규 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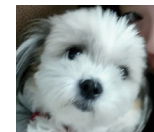
**Pet Name : 그레이스(Grace)**

**특징 :**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

5년 전 어느 겨울날, 아들 두 놈이 눈물까지 똑똑 흘리며 강아지를 사달라고 조르더라고요. 그 애원을 차마 거절하지 못한 저... 그 다음 날, 그레이스는 그렇게 우리 집 막내딸이 되었답니다. 이제 다섯 살이 된 우리 그레이스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개, '그레이하운드'의 미니여친인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랍니다. 자전거 타는 아저씨들보다 더 빠른 아이지만 항상 목줄을 풀어 주지 못해 마음이 많이 안타까워요. 그레이스야,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오빠들이 자주 자주 산책 시켜줄게.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사랑한다 딸~

## 우리 집 막둥이, 찌루를 소개할게요!

재무경리부 김솔희 사원



**Pet Name : 찌루**

**특징 :**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순둥이

찌루는 우리 가족과 함께한 지 벌써 10년이나 된 귀여운 시츄예요. 성격이 순해서 잘 찾지도 않는 귀여운 멍멍이랍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찌루. 가끔 주인을 잊은 채 앞서가는 타인을 꼬리치며 따라가다가도, 제가 안 보인다 싶으면 오나 안 오나 확인하며 두리번거리는 착한 아이죠. 일요일마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동물농장'을 열심히 시청하는 모습도 정말 사랑스러워요~ 찌루가 건강하게 장수해서 우리 가족 옆에 오래 머물러 있어 주길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해, 찌루야!^^

# 새롭게 단장한 종로지점, 화기애애한 우리 지점에 놀러오세요!



좌측부터 이동현 지점장, 김혜진 주임, 현희지 사원, 우예은 사원, 정진연 사원

영업이 모두 끝난 오후 5시. 잠시 한숨을 돌린 뒤 업무 제2라운드가 펼쳐진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사람들, 바로 새롭게 이전한 종로지점의 구성원들이다. 이동현 지점장을 필두로 네 명의 직원들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종로지점을 찾았다.

## 새롭게 등지를 든 종로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종로지점이 문을 연 것은 지난 8월 3일. 기존의 미아지점이 이전한 것으로,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이동현 지점장과 김혜진 주임, 정진연 사원, 우예은 사원, 현희지 사원으로 구성된 작은 규모지만 본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객을 만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

또한 구성원의 대다수가 젊은 여직원들이어서 그런지, 맛집이나 상점이 많은 종로로 오게 돼 좋라며 입을 모은다.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언제나 활기 넘치는 이곳으로 출근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기쁨이 들어가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곳에서의 기대감과 함께 미아지점에서 만난 고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든다는 이동현 지점장. 기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물과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거래해주신 미아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소 거리는 멀어졌지만 종로에서도 전처럼 최선을 다해 고객을 만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점을 많이 이용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이동현 지점장의 말처럼 어느 곳에서도 SBI저축은행 최고의 영업점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마음가짐과 변함없는 서비스로 노력하겠다는 이들이다.



##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우리 지점만의 장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때 조직은 순항한다. 열린 소통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종로지점의 비결은 바로 "서로에게 희망이 되자"라는 모토를 공유하는 것. 어쩌면 '가족 같은 분위기'라는 것은 꿈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료로서 힘이 되고 희망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소규모 인원으로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모두 고생하고 있지만, 나의 '희망'인 동료를 믿고 의지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다.

또한 자상하게 직원들을 챙기는 이동현 지점장과 성격이 밝은 네 명의 직원이 함께하니 종로지점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업무뿐만 아니라 서로의 기쁘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누며 생활하고 있는 종로지점 구성원들. 김혜진 주임은 "모두가 '배려의 아이콘'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마음이 따뜻합니다. 특히 저와 지점장님을 따르는 나머지 세 명의 사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죠. 모두 업무부터 인성까지 빠지는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에요"라며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 진심으로 고객을 만나고, 희망이 되는 영업점

큰 성과를 올리거나 뛰어난 실적을 기록하는 등 영업 측면에서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고객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이들. 한 번 스쳐 가는 인연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만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고객들도 많다. 어려울 때 종로지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감사를 건네거나,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편이 뿌듯해진다. 방문할 때마다 직원들을 따뜻하게 대했던 한 고객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는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처럼 친절과 맞춤 서비스를 넘어 진심을 전하고, 거기에 실적까지 갖추겠다는 것이 이들의 목표다.

“리딩 저축은행으로서의 품격에 걸맞은 지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 미아지점보다 여러모로 환경이 좋아졌고 기대치 또한 높아졌으니 눈높이에 맞는 실적을 내야겠지요. 또, 따뜻한 마음으로 고객을 만나는 일도 잊지 않겠습니다. SBI저축은행의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는 종로지점. 바뀐 환경에 적응을 마쳤으니 활발히 영업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업무에 관련된 공부나 금융 지식 등을 쌓으며 역량을 키우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금보다 더 바쁜 날들의 연속이겠지만 최고의 팀워크를 발휘하며 내실 있는 영업점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껏 잘 해왔던 것처럼, 또 한 번 도약할 날을 기다리며 발걸음을 맞춰갈 이들의 행보가 기대된다.



- 1 저는 종로지점의 지점장으로서 지점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 2 저희 지점 최고의 장점은 하나 된 팀워크죠. 구성원 개개인의 인성이나 실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탄탄한 팀워크로 최적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3 미아에서 종로로 이전하니 주변의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네요. 기대에 걸맞은 실적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항상 발전하길 바랍니다.



/ 이동현 지점장 /

- 1 저는 지점의 책임주임으로, PB와 지점장님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2 저희 지점은 지점장님께서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셔서 늘 활력이 넘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우며 일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종로지점이 전략이행도 1등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방카슈랑스나 여신, 기타 업무에서도 최고의 지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혜진 주임 /

## Mini Interview



- Q1. 자신을 소개해주세요.
- Q2. 종로지점만의 강점이나 자랑거리가 있나요?
- Q3. 종로지점에 근무하면서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가요?

- 1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지점에서 모출납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연입니다.
- 2 저희 지점 식구들은 얼굴이 예쁘기도 하지만, 마음까지 착하답니다. 특히 청일점인 지점장님께서 재치 있고 재미있어서 덕분에 분위기가 늘 활기가 넘칩니다. 늘 서로에게 힘이 되고 폭넓게 소통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 3 금융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배워서 노하우도 쌓고, 멋진 PB가 되고 싶습니다.



/ 정진연 사원 /

- 1 종로지점의 '햇살', 우에은입니다! 현재 여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본사와 가깝다는 것이 강점이자 장점 아닐까요? 무엇보다 활기찬 종로에 있다는 것이 크나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 3 고객님들께서 자꾸만 찾아오고 싶은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욱 지식을 넓혀 직무에 몰입하고 싶습니다.



/ 우에은 사원 /

- 1 종로지점의 귀염둥이^^ 막내 현희지입니다. 대출과 지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저희 장점은 하나 된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바쁘고 힘든 때에도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 3 종로지점의 강점인 팀워크를 발휘해서 SBI저축은행의 방카슈랑스 판매율 1위를 달성하고 싶습니다!



/ 현희지 사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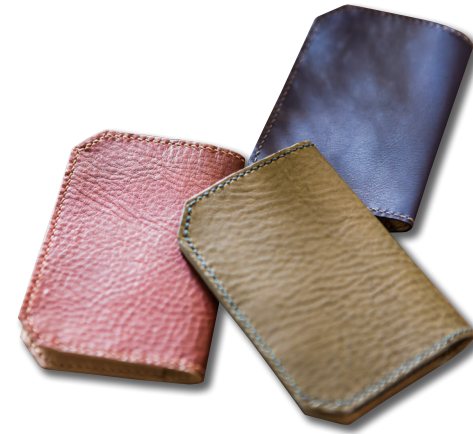




# 한 땀 한 땀 마음을 꿰다 가죽 명함지갑 만들기

에디터\_배유진 / 진행\_홍보부 김원준 / 사진\_니오타니스튜디오

좌측부터 이순기 주임(여성영업1부), 김희은 사원(전략기획부), 박인성 주임(경영관리부)



해외에 나가 있는 남자친구 생일선물을 손수 준비하고 싶은 여자, 고객과의 첫 만남에서 자신이 만든 근사한 명함지갑을 꺼내고 싶은 남자, 그리고 얼떨결에 동기 따라 참여했다는 남자. 이렇게 셋이 어느 가을날 신사동 골목의 한 가죽공방에 모였다. 바늘이 두툼한 가죽을 지나 한 땀 한 땀 자신만의 명함지갑을 완성해 나가는 두 시간 반 동안 공방에는 뜨거운 몰두와 시원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 가죽공방의 문을 열다

가죽은 쓰면 쓸수록 깊은 멋이 묻어나는 소재다. 그러한 가죽에 손맛을 더하는 가죽공예는 아무리 같은 원단과 같은 도안으로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결코 같은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렇게 만든 제품은 사용하는 이의 손때가 묻어날수록 더욱 멋스러워진다는 점에서, 최근 나만의 물건을 만들고자 공방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매력을 지닌 가죽의 세계에 우리도 한 번 빠져보겠노라며 이순기 주임(여성영업1부), 박인성 주임(경영관리부), 김희은 사원(전략기획부)도 당차게 클래스를 찾았다. 공방에 들어서자마자 묵직하게 풍겨오는 가죽 냄새와 함께 세 사람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곳곳에 진열돼 있는 다양한 가죽 제품들. 지갑, 여권 케이스, 액세서리를 비롯하여 서류가방과 클러치 백까지 모두 수제로 만든 작품들로, 근사한 자태를 뽐내면서 사우들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더욱 일렁이게 했다.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이런 명함지갑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니 무척 기대돼요. 평소 손재주 있다고 애진 들었지만, 가죽 공예는 처음이거든요. 그래도 멋지게 완성해서 곧 생일을 맞이하는 남자친구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싶어요. 호호호!” 큰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 김희은 사원은 당장이라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바느질에 돌입할 태세다. 함께한 이순기 주임 역시 고객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손수 만든 명함지갑을 꺼내보는 상상을 하며 “웬지 오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동기인 이순기 주임 따라 공방까지 왔다는 박인성 주임도 “타 부서 사우와 교류도 할 수 있으니 이 또한 뜻깊은 시간 아니겠어요?”라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 손수 자르고, 다듬고, 붙이고

오늘 이들이 도전할 과제는 명함 케이스. 각자 원하는 색상의 가죽을 공방의 선생님에게 미리 요청했는데, 마치 짜기라도 한 듯이 가을에 모두 잘 어울리는 색감들이다. 그렇게 준비된 가죽의 겹감(엷소피)과 안감(둔피 스웨이드) 안쪽에 최대한 얇게 본드를 펴 바르는 것에서부터 작업은 시작되었다. 본드의 양이 많으면 자칫 울퉁불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골고루 바르는 것이 포인트. 본드가 어느 정도 마르면 겹감과 안감을 붙이고 도안을 따라서 깔끔하게 가죽을 재단한 다음, 재단한 단면에 원하는 컬러의 에지코트를 발라 건조시킨다.

다음은 각 가죽들을 조합하여 기본 모양을 만드는 접착 공정. 가죽면에 본드가 닿을 영역을 표시한 뒤, 대략 3mm 두께로 본드칠을 하고 끝선을 정확히 맞춰 조각들을 붙이자 일추 명함지갑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제 가죽의 색상을 고려해서 바느질에 쓸 실의 컬러를 골라주세요. 가죽과 실의 색이 비슷할수록 바느질이 조금 매끄럽지 않아도 감춰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김희은 사원은 베이지색을 단번에 집어 든다. 반면 이순기 주임과 박인성 주임은 다양한 색상의 실패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보다 못한 김희은 사원이 “남자분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못해요?”라며 살가운 핀잔을 준다. “난 이런 게 제일 어려워!”라고 답하는 이순기 주임의 말에 공방에는 또 한 번 웃음꽃이 핀다. 오늘 처음 만난 사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정겨운 모습이다.

### 차분하고 꾸준하게, 바늘길을 만들다

세 사람의 눈동자에 결연한 의지가 들어차 있다. 바로 가죽공예의 하이라이트인 바느질을 앞두고 있기 때문. 그런데 선생님이 이들에게 건넨 것은 바늘도 실도 아닌, 뽀족한 다이어터와 포크처럼 생긴 그리프, 그리고 망치다. 두꺼운 가죽을 바늘로 바로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다이어터를 이용해 바느질선을 잡아준 후, 그 라인에 그리프를 대고 망치로 탕탕 두드려 바느질용 구멍을 만들어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선생님의 시범을 보고 감을 익힌 세 사람.

이태리 장인의 포스로 망치질에 나섰다. ‘탕탕- 탕탕-’, 제법 잘 한다는 선생님의 칭찬에 탄력을 받은 삼인방은 더욱 빠른 속도로 그리프를 옮기면서 정확하게 바늘길을 만들어 나간다. 가죽은 일반 천에 비해 두꺼운 만큼 특별한 바느질 기법이 필요하다. 이들 역시 실 하나에 두 개의 바늘을 걸고 서로 엇갈리게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 방식으로 바느질에 돌입했다. 수다가 끊이지 않았던 세 사람이었지만 바느질 앞에서는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었고, 웃음기도 사라졌다. 온전히 바느질에만 몰두하며 차분함과 꾸준함으로 한 땀 한 땀 가죽을 꿰어나갈 뿐이다.

“어휴~ 명품 가방이 정말 비쌀 수밖에 없겠네요.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이잖아요. 부서원들이 오늘 잘 배워서 자기 것도 만들어 달랐는데 아무래도 들어주기 힘들 것 같아요.” 김희은 사원의 말에 이인성 주임도 깊이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 마음과 정성이 담긴 가치 있는 시간

마지막 매듭을 짓고 사포질과 에지코트를 다시 한 번 발라주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명품 명함지갑이 슬금슬금 모습을 드러내었다. 완성된 지갑을 보는 순간, 2시간 반 동안의 고단함은 눈 녹듯 사라졌고 세 사람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번진다.

“오늘 친구 따라 제대로 온 것 같네요. 완성된 명함 케이스만 보면 그저 우아해 보이지만, 만드는 과정은 결코 우아하지 않잖아요. 도구들도 투박하고, 칼질에, 망치질에, 사포질까지. 그래도 차분히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완성된 걸 보니 아무래도 제가 써야 할 것 같아요.”

박인성 주임의 말처럼 결과물에는 고고함이 흐르지만, 가죽을 고르고, 자르고, 꿰매고, 붙이는 그 모든 공정에 만드는 이의 세심한 손길이 담겨 있기에 명함지갑은 단순한 소품이 아닌 그들에게 뿌듯한 작품이었다. 여기에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를 떠올리고, 고객을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 담겨 있으니 백화점 진열장에 전시된 그 어떤 제품보다도 더욱 빛나 보이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그렇게 손때와 시간이 더해질수록 점점 더 멋이 살아나는 가죽공예를 접하며, 세 사람은 결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감동과 가치에 대해 조용히 되뇌어본다.



# 동물 마니아 김호중 차장 가족, 제주도로 유쾌한 여행을 떠나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몸이 근질거리는 주말이면 문득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진다. 하지만 오가는 길도 만만찮고 딱히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제주도는 어떨까? 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맛있는 조개구이도 즐긴 김호중 차장 가족처럼 말이다.



## 동물농장 친구들과의 설레는 첫 만남

서울에서 두 시간여 거리에 위치한 제주도는 주말 나들이객이 자주 찾는 여행지다. 비교적 가까운 데다 때를 맞춰 가면 활짝 열린 바닷길을 볼 수 있어 인기 있다. 거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즐길 거리 한 가지 더, 바로 다양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제주도 동물농장'이다. 주말 이른 아침부터 농장을 찾은 김호중 차장(NPL부) 가족은 오늘 여행에 대한 기대가 크다. 모처럼 가족끼리 떠난 나들이여서도 그렇지만, 두 아들 계림(12세)이와 기림(15세)이가 동물이라면 껌뻑 죽기 때문이다.

“아이들 모두 어찌나 동물을 좋아하는지, 집에서 토끼와 물고기부터 육지 거북이까지 온갖 애완동물을 다 길렀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기르다 보니 정이 들더라고요.”

김호중 차장의 말처럼 계림이와 기림이는 곳곳의 동물들에 눈길을 주느라 정신이 없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곤히 잠든 고양이부터 반갑게 뛰어올라 가족을 맞는 강아지, 새장 속 알록달록한 앵무새와 귀여운 외모의 당나귀까지 일일이 쓰다듬고 눈을 맞추는 형제다.

## 아끼는 마음 가득 담아 먹이를 줘볼까?

이들이 가장 먼저 도전한 것은 바로 먹이 주기 체험. 토끼 같은 소형 동물부터 말이나 당나귀 등 대형 동물까지 직접 먹이를 주며 가까이서 볼 수 있다. 동물마다 먹이가 다르고 주는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가족들은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이 우리로 향하자 눈치가 빠른 토끼들은 움직임이 분주해진다. 앞발을 가지런히 모은 채 코를 쫓긋거리는 토끼들의 모습에 계림이는 신이 났다.

“엄마! 저것 좀 보세요. 열린 먹이를 달라고 보채는 것 같아요. 진짜 귀여워요.”

다른 건 몰라도 털 날리는 동물은 절대 안된다면 엄마 심현미 씨도 어느새 뽀송뽀송한 아기 토끼의 모습에 눈길을 빼앗긴다. 쿵쿵대며 사료를 먹는 미니돼지와 순한 양까지, 우리를 한 바퀴 돌고 밖으로 향한 가족들. 다음으로 만난 친구는 맑은 두 눈이 예쁜 꽃사슴이다. 먹이를 먹는 사슴을 가만히 쓰다듬는 형 기림이의 표정이 한없이 부드러워진다. 집에서 기르는 육지 거북, '재롱이'의 주인이기도 한 기림이는 “재롱이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느릿느릿 거북이일 뿐이지만 웬지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걸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란다. 재롱이가 기분이 좋으면 가만히 눈을 맞춰주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부쩍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진정한 의미의 교감이다. 마지막 장소인 잉포 체험장에 다다른 가족들은 탄성을 내뿜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십, 수백 마리의 노란 잉포가 동시에 날아오르는 풍경이 동화처럼 아름답기 때문이다. 손바닥에 모이를 털자 어느새 잉포들이 주변으로 모여든다. 어떤 녀석은 어깨 위에, 어떤 녀석은 손바닥 위에, 또 다른 녀석은 머리 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뾰족한 부리 때문에 간지럽다고 불벤소리를 하면서도 아이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 신나게 달려라! 이랴, 이랴!

대형 동물 사육장으로 온 가족들. 계림이는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린 눈치다. 당나귀도 직접 타보고, 마차로 농장도 돌아볼 것이라는 얘기에 “저 빨리 당나귀 타볼래요, 마차도요!”라며 아빠를 재촉한다. 그러나 학교 대표 야구선수로 활약할 정도로 다소 건강(?) 체격 덕분에 나귀가 힘들어하자 금세 미안해하는 계림이. 덩치만 컸지 마음이 여리고 순하디순한 아이다.

“어릴 때 야구장에 데려갔다가 소질을 보인 뒤로 지금까지 쪽 엘리트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 나이에는 버거울 만한 혹독한 훈련도 묵묵히 견디는 아이인데,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어리광도 많고 애교도 넘쳐서 꼭 딸같은 아들이에요.”

김호중 차장의 말을 듣고 나니 발길 닿는 곳마다 팔짝팔짝 뛰며 좋아하는 계림이의 모습이 달리 보인다. 야구장과 학교, 집만 오가다 오랜만에 나들이를, 그것도 좋아하는 동물이 가득한 이곳에 놀러 왔으니 어찌 신나지 않을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 가족들은 늙은 풍채의 백마가 모는 꽃마차에 올라탔다.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농장을 돌아보는 낭만을 상상했지만, 아뿔싸! 가족을 태운 말은 트랙을 냅다 내달리기 시작했다. 흡사 <벤치>의 경주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레이스에 엄마는 비명이, 아이들은 웃음보가 터졌다.

### 졸깃졸깃 조개구이로 푸짐하게 마무리!

동물 구경도 식후경! 나들이에 맛있는 음식이 빠지면 섭섭하다. 점심이 되어 모두가 향한 곳은 근방의 조개구이집. 한창 키가 클 나이인 기림이와 먹성 좋은 계림이는 연신 배가 고프다고 성화다. 주말 아침부터 먼 길을 나선 아빠와 엄마도 시장하기는 마찬가지. 잠시 후 테이블 가득 싱싱한 조개가 올라오자 모두 얼굴이 밝아진다. 거기에 윤기 잘잘 흐르는 회 한 접시까지, 가족의 나들이에 정점을 찍는 푸짐한 한 상이다.

“아이가 운동을 하니까 가족들의 스케줄도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주중에는 회사에서, 주말에는 야구장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첫째 기림이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며 학원이며 바빠서 통 시간 낼 여력이 없었네요. 여행을 참 좋아하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렇게 마음 가볍게 놀러 나온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기회를 얻게 돼 감사한 마음이라는 김호중 차장의 이야기에서 가족에 대한 애뜻함이 묻어난다. 입을 벌린 조개에서 잘 익은 살만 골라내 아내의 손가락 위에, 아이들의 입에 직접 넣어주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니 입맛도 더 좋다. 수북이 쌓여 있던 조개가 게눈 감추듯 사라지고, 리필에 리필! 누가 뭐래도 마무리는 시원한 해물 칼국수다. 양 볼 가득 칼국수를 맛있게 먹는 두 아들을 보며 부부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 오늘 나들이가 어땠냐는 물음에 대답 대신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올리는 계림이와, 조용한 말투로 “좋았어요”라고 답한 기림이. 표현이야 어떻든 오늘이 이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하루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짧은 여행을 마무리하며 바닷가로 나온 가족. 기념사진을 찍겠다는 말에 김호중 차장은 얼른 차로 뛰어가 무언가를 꺼내온다. 그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형 우산.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그의 빛나는 센스에 다들 웃음이 뺨 터졌다. 제부도에 첫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추억을 사진으로 남긴 마지막까지, 사랑스러운 이 가족의 하루는 그렇게 유쾌했다.

# 올 가을, Fall in Coffee!



선선한 바람이 불자,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자연스레 떠오른다. 진한 향기의 커피만큼 이 가을과 어울리는 차가 또 있을까. 그리하여 준비했다. SBI인이 추천하는 분위기 카페 카페부터,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커피집과 실력 좋은 바리스타의 커피숍까지. 한 잔의 커피와 함께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보자.

## 이 가을, 여기는 꼭 들러야 한다! 한 번쯤은 가봐야 할 SBI인 추천 커피 맛집, 멋집

**경기 의정부시 / 오크힐커피** 관다름 사원(명동지점)  
7,000평 대지에 지어진 카페라 멀리 교외에 나온 느낌이 딱딱 나는~ 장암에 위치한 '오크힐커피'입니다! 브런치 먹기도 좋고 가족끼리 한가롭게 대화 나누기도 좋은 카페예요. 한 번 갔다가 완전 반했답니다!

**경기 남양주시 / 고당** 조철범 사원(총무부)  
한옥의 멋스러움이 있는 남양주의 '고당'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옥'하면 전통차를 생각하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한옥과 현대적인 미각의 조화를 만날 수 있어요, 고당으로 Go Go!!

**경기 남양주시 / 봉주르 카페** 박혜미 사원(수내지점), 장윤준 사원(총무부)  
팔당호가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이 장관. 연인과 나들이객으로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북적거리는 곳!

**경기 양평군 / 닥터박 갤러리** 공예선 대리(이수지점)  
1층에 커피숍과 아트홀, 2~3층에 전시실과 아트숍이 마련돼 있는 3층 규모의 이색 복합 문화공간. 입장권을 내밀면 관람 후에 음료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경기 구리시 / 모던기와 커피** 전지윤 과장(IB3부)  
동편에서 서편으로 흐르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전망 좋은 카페.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차와 담소를 즐기 좋습니다.

**경기 성남시 / 카페랄로** 박진형 과장(여신영업4부)  
교외의 한적함을 느낄 수 있는 운중저수지 근교의 비스트로 카페

**서울 종로구 관철동 / 커피점방** 손재홍 사원(IB2부)  
이억훈 어학원 건물 뒤 '커피점방', 주인장의 핸드드립 솜씨가 일품입니다. ^^

**서울 마포구 상수동 / 르뿌띠푸** 황영민 사원(여신영업4부)  
상수역 근처에 있는 '르뿌띠푸'를 추천합니다. 맛 좋은 커피뿐만 아니라, 르뿌띠푸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마카롱 롤케이크이 정말 괜찮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 도레도레** 전소연 사원(명동지점)  
케이크 '덕후'라면 알고 있을 케이크 맛집. 무지개케이크에 커피 한 잔이면 환상적 궁합!

**서울 도봉구 / 산과 산 사이 커피로드** 김진성 과장(IB2부)  
당일 로스팅한 신선한 드립커피의 맛과 향 그리고 도봉산의 멋스런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서울 삼성동 / 커피북는집** 안승훈 과장(홍보부), 이보영 사원(홍보부)  
뛰어난 커피 맛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주인장이 수집한 음반과 책, 소품들로 채워진 따뜻하고 안락한 명소 중의 명소.

**강원도 강릉시 / 테라로사** 이재원 사원(오토론 TFT), 권혁준 대리(여신영업2부)  
대한민국 커피의 성지라 불리는 '테라로사' 본점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 이번 주말에 어때요?



**부산 해운대구 중동 / Café Van** 한재숙 사원(삼성지점)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위치한 곳으로, 바다와 하늘과 커피향이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이죠.

**부산 남구 용호동 / 빈101** 김유미 사원(포항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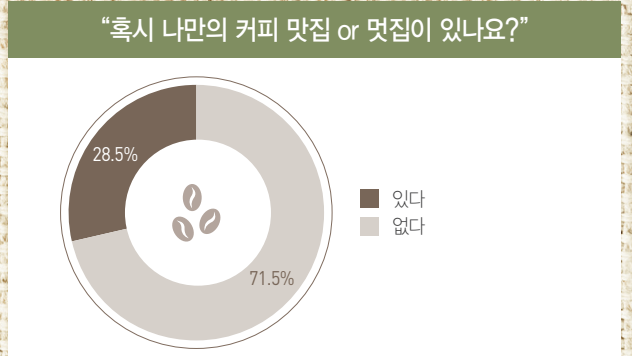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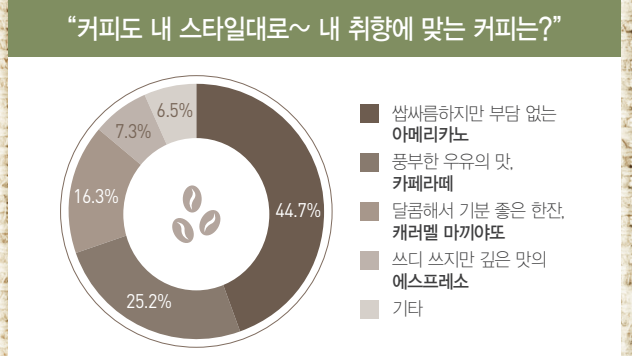
광안대교가 보이는 전망과 탁 트인 공간, 여기에 풍경을 느긋하게 즐기며 실 수 있는 쇼파베드까지. 연인과 함께 여유를 만끽하기 좋은 최고의 장소(맛있는 파스타도 있어요!!)

**대전 서구 둔산동 / 라드커피** 라지혜 사원(대전지점)

빈티지한 분위기 속에서 미남 바리스타가 전하는 커피라 그 맛이 꿀이에요!

**제주시 애월읍 / 봄날 카페** 라지혜 사원(대전지점)

아름다운 제주 바다와 딱 붙어있는 봄날 카페. 드라마 '맨드롱도트'의 촬영지이기도 했죠?



**그밖에 ...** 삼성역 '웍스프레소' [손주현 사원(CSS부)], 남양주의 '닥터앤얼츠만' [유형근 사원(인사부)], 울림픽지점 일층에 있는 '아티제' [김보명 사원(울림픽지점)], 서울 중구의 '다동커피집' [김학범 차장(정보시스템)], 분당 서현 '윌페이퍼' [강은 사원(IB3부)], 종로의 '맘모스 커피' [박진영 대리(소호영업부)&유정은 대리(소호영업부)] 등

# 업무 효율 200%! 정리의 법칙

오늘도 복잡한 서류철이나 흐트러진 책상 위에서 필요한 것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했다면 여기 주목할 것. <미생>의 장그래도 부럽지 않은 파일트리 만드는 법, 깔끔하고 쾌적한 책상 정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정리의 법칙을 소개한다.



팀장님이 예고도 없이 내 자리에 기습 방문했는데, 하필이면 입사 이래 가장 지지분한 책상 위는 어찌된 좋을까? 또 매번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책상을 뒤적이는 일도 골치다. 직장생활에 있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보안'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본인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책상 정리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기'다. 가급적 현재의 업무와 관련한 물건 중심으로 '지키되' 나머지는 버리거나 이사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자주 쓰는 물건(필기구, 클립, 스탬플러, 포스트잇 등)이나 서류는 눈에 보이고 바로 손으로 집을 수 있는 곳에 뒤편에 효율적이다.

일주일이나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한 번 열어볼까 말까 하는 서류는 바인더나 서랍장을 이용해 프로젝트별로 또는 시간(년/월)별로 구분해 보관하는 것이 효과적이긴 하다. 하지만 요즘처럼 PC나 사내 전산망을 활용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서류를 버리는 '일간 이벤트'가 필요하다.

버리기도 요령이 있다. 지금 당장 버려도 되는 '폐기물'도 있겠지만, 기한을 두고 보관했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서류도 있고,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물'처럼 모셔둬야 하는 자료도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정리하다 보면 본인만의 정리 기준과 습관이 생기게 된다.



“올해 내가 대체 무슨 일을 했지? 분명 정신없이 바쁘기는 했는데...”

연말 즈음 본인의 실적과 성과를 적어 내고 개인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양식 내 칸이 모자라 다음 페이지를 준비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몇 줄 적지도 못했는데 벌써부터 소재가 바닥이다.

잘 나가는 직장인들에게는 '일정'도 정리의 대상이다. 회사에서 나눠주는 다이어리 또는 평소에 들고 다니는 업무 수첩은 분명 액세서리가 아니다. 일정이 생길 때마다 캘린더에 적어놓는 게 중고등학생 수준이라면, 다이어리를 업무 '일지'로 적극 활용하는 수준 정도는 돼야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과가 끝나고 퇴근하기 전 내가 오늘 무슨 업무를 했는지 간단히 일지로 기록하는 습관은 경력 관리에 무섭도록 효과적이다. 특히 나의 업무가 영업직처럼 바로 정량적 성과로 관리되거나 회계직처럼 루틴(routine)한 성격이 아닐 경우 더욱 필요한 습관이다.

업무 개요뿐만 아니라 특이사항, 제안사항, 보고사항 등 그날 발생한 일정 관련 변동사항 등에 대해 전부 기록한다면 더욱 좋다. 프로젝트 히스토리 추적에 도움이 되고, 상사와의 업무 면담 시나 회의 때 그 무엇보다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급히 요청할 자료가 있어 전화를 걸었을 때 바로 찾아 메신저로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인 사람도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PC 내 자료 폴더 관리에 있다.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본인이 관리하는 자료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료 폴더 관리에 익숙하지 않으면 업무 효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우선, 하드디스크 내 큰 뼈대인 폴더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폴더명을 입력할 때 조직 또는 시간 개념을 도입하면 좋다. 예를 들어 전사, 사업본부, 사업부, 팀 순서로 분류하면 타 부서와 협업할 때에 도움이 되고, 머릿속에서도 전사 차원의 이슈와 현업 부서의 이슈를 구분할 수 있는 장점도 생긴다. 가장 최고 레벨의 폴더에는 연간(예: 2014, 2014년)이나 분기(예: 1분기, 2014-1Q) 이름을 붙이는 것이 검색에 편리하다. 컴퓨터에 업무 외의 개인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거나, 업무상 취득한 지식이나 정보(회사기밀은 제외)를 개인 용도로 정리가 필요할 때 폴더 자체를 '개인'과 '업무'로 구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폴더 내에 저장하는 각종 파일의 이름을 붙일 때도 자기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우면 좋다. 특히 파일 이름에 생생 날짜를 함께 명기하는 것은 기본이다. 만약 수일에 걸쳐 작성하고 있는 보고 서라면 버전 업데이트 관리도 되고, 추후 프로젝트 연혁을 추적하기에도 효율적이다.



# BEYOND SAVINGS BANK >>>

함께하는 **SBI**

따뜻함을 '품은' SBI저축은행의 즐거운 이야기들



금융가이드

독소리 나는 '개인 신용등급' 관리 비법



Culture Blog

오감이 찢릿 찢릿! 눈이 즐거운 음식영화들



행복 릴레이



Break Time

# 똑소리 나는 ‘개인 신용등급’ 관리 비법

최근 들어 신용등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방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요한 순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신용등급, 평소에도 튼튼히 다져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의 신용이 정말로 유용하게 쓰이는 순간은 언제일까? 바로 대출을 받을 때다. 평생 대출받을 일이 없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잘 쓴다면 굳이 신용점수를 올리려고 힘쓸 필요는 없다. 하지만 갑자기 큰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긴다면?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 개인 신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한편 금융당국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속하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 성인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는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 내 신용등급은 몇 등급일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최근에는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발급 조건에도 신용등급이 영향을 미치므로 평상시 개인 신용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 대출이 있다면 대출 이자는 연체되지 않게 상환하자

신용점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대출 이자의 연체다. 신용평가기관에서는 금융권 총 채무액, 대출 상환율, 예금거래 실적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 신용점수를 산출한다. 신용점수는 1,000점을 만점으로 하고,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구간별로 등급을 매겨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등급을 받는다. 만약 계속 연체한다면 대출 상환율이 점점 떨어지게 되므로 10등급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물론 대출 이자나 원리금을 연체 없이 잘 상환한다면 반대로 신용점수가 올라가므로, 부채가 있다면 성실하게 빚을 상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무분별한 신용 조회는 금물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상으로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문의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무분별한 신용등급 조회다. 대출 여부를 떠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신용등급을 조회하면 점수가 다소 하락하게 된다. 물론, 신용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열람하는 경우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니, 신용점수에 관심이 많거나 자기 등급이 궁금한 사람은 관련 사이트에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여 관리하는 게 좋다. 참고로 연 1~3회 정도 신용등급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으니 이번 기회에 신용등급을 한 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겠다.



## 주거래 은행에 금융 거래를 집중하자

주거래 은행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통장, 급여 이체,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등 거래 실적을 올리면 향후 대출을 받을 때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적금, 예금을 하면 거래 실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제2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으므로 주거래 은행에 저축할 필요는 없다. 제2금융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은행마다 1인당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는 요즘에는 제1금융권 이자가 연 1%대 초반에 불과해 은행 이자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자소득세를 떼고 난 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이자는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자를 많이 주는 저축은행에 저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 현금서비스는 개인 신용등급의 적

지갑 안에 현금이 없고 통장에도 잔고가 없는데, 급하게 현금을 써야 할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때가 있다. 하지만 개인 신용등급을 위해 현금서비스 사용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고,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준다. 또한, 현금서비스도 일종의 대출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자와 함께 상환해야 한다. 혹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있다면 ‘선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이자 상환액을 최소화하자.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자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면 포인트와 각종 할인으로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다음 달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재무적으로 병이 될 수도 있다. 신용카드가 무분별한 소비습관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도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내놓아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를 25%에서 30%로 확대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5%인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상황에 따라 똑같은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근로소득자라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해 자신이 국가에 낸 세금을 최대한 돌려받도록 하자. 평상시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연체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신용등급을 높이는 길임을 명심하자.



# 보는 것만으로도 오감이 짜릿짜릿! 눈이 즐거운 음식 영화들

'떡방'에 이어 '죽방'이 대세다. TV 어느 채널에서나 셰프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을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요리와 음식은 문화콘텐츠의 한 분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을, 열정을 노래하는 도구가 되는 요리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 화려한 영상미와 탄탄한 스토리로 우리의 눈을 두드리고 혀를 자극하는 동서양의 음식 영화들을 소개한다.



## 웃음 한 스푼, 감동 두 스푼 〈아메리칸 셰프〉



2015년

감독  
존 파브로

주연  
존 파브로, 엠제이 안소니,  
소피아 베르가라

누구보다 요리를 사랑하고 잘나가던 셰프였지만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주인공 칼 캐스퍼는 쿠바식 샌드위치 푸드 트럭을 시작하게 되고, 아들과 미국 전역을 일주하며 요리와 인생의 즐거움을 되찾는다. 그러던 어느 날, 푸드트럭에 흑 평을 퍼부었던 평론가를 다시 만나는데...

이 영화를 보면 당장이라도 먹고 싶어지는 음식이 있다. 바로 쿠바식 샌드위치. 노릇노릇하게 구운 빵에 녹아내린 치즈, 육즙을 한껏 머금은 기름진 돼지고기가 엄청난 풍미를 선사하는 음식이다. 켜켜이 쌓아 지글지글 구워낸 만큼 먹는 즐거움도 배가 되는 느낌이랄까? 주인공에게 새로운 맛의 즐거움을 깨우쳐 주었듯, 당신의 평범한 일상에도 새로움을 선사할지도 모른다.

## 참을 수 없는 프랑스 요리의 유혹 〈줄리&줄리아〉



2009년

감독  
노라 애프론

주연  
메릴 스트리프,  
에이미 애덤스

평범한 공무원이자 요리 블로거인 줄리가 그녀의 이상인 전설의 프렌치 셰프 줄리아의 책을 보고 524개의 레시피에 도전, 블로그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잠들어 있던 열정을 다시금 찾아가는 내용을 그렸다.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간 두 사람의 이야기가 평행이론처럼 구성돼 보는 재미를 더한다. 영화의 가장 큰 재미는 단연 요리다. 버터가 듬뿍 들어간 생선요리, 다크 초콜릿으로 뒤덮인 케이크, 수란과 홀란다이즈 소스의 조합이 입안에 착착 감기는 에그 베네딕트, 깊은 풍미가 눈으로도 느껴지는 뷔프 부르키옹 등 영화 속 수많은 요리는 당신이 허기진 배를 더욱 움켜쥐게 할 것이다. 그뿐인가, 분명 가슴 한편에 숨겨진 열정도 꿈틀댈 것이다. 줄리와 줄리아가 그랬듯이.

##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한 그릇의 위로 〈하와이언 레시피〉



2012년

감독  
사나다 아츠시

주연  
오카다 마사키, 바이쇼  
치에코, 아오이 유우

'음식영화'하면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탐스럽고 화려한 음식들을 부담스럽지 않고 깔끔하게 영화 속에 담아내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듯하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다. 소원을 이뤄준다는 '달 무지개'를 보러 하와이 북쪽의 호노카아 마을에 온 레오는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이별을 맞은 적이 있다. 그 후 아픈 추억이 있는 이곳을 다시 찾은 레오는 작은 영화관에서 일하면서 남다른 매력을 가진 호노카아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게 된다. 영화는 비이 할머니가 만드는 말라사다 도넛, 롤 카베츠, 하와이식 포키 버거, 마마키 허브 차 등을 통해 줄곧 이야기한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그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 별것 아닌 음식 한 그릇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이다.

## 헤어나올 수 없는 달콤함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2008년

감독  
민규동

주연  
주지훈, 김재욱, 유아인

동명의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 주인공 진혁은 어린 시절 트라우마로 인해 단 것이라면 딱 질색이지만, 손님 대부분이 여자라는 이유로 케이크 가게를 오픈한다. 어느 날 그의 가게에 케이크를 만들 천재 파티시에 '선우'가 들어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주요 인물들의 비밀스러운 속사정이 얽히고설켜며 시종일관 궁금증이 일어난다. 무엇보다 영화의 배경이 케이크 전문점인 만큼 등장하는 케이크를 눈으로 따라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무스케이크, 시트와 생크림만으로 승부하는 쇼트케이크,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파이류의 케이크까지 그야말로 케이크 천국이다. 어쩌면 영화를 보는 내내 커피 한 잔, 홍차 한 잔이 절실하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 도시락통에 담긴 사랑 〈런치박스〉



2014년

감독  
리테쉬 바트리

주연  
이르판 칸, 님랏 카우르

영화의 주인공 일라는 소원해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매일 아침 직접 만든 도시락을 남편에게 배달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배달원이 홀로 사는 중년의 회사원에게 도시락을 잘못 전달한 것! 정성을 들여 녹진하게 끓인 커리에, 결들인 난과 밥을 맛본 남자 주인공 사진은 그 안에 편지를 넣어 도시락통을 돌려보낸다. 호기심으로 계속 도시락 안에 편지를 넣어 주고받게 된 두 사람은 점차 서로에게서 위안과 활력을 얻게 된다. 동그란 도시락통에 담긴 서민적인 인도 가정식을 통해 가슴 뭉클함을 경험할 수 있는 영화, 런치박스. 마음을 미처 표현하지 못해 아쉬운 사람이 있다면, 이 영화처럼 작은 도시락통 가득 따뜻한 식사로 사랑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



# 미우나 고우나 내 사람! 고마운 당신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녹록지 않은 회사생활에도 웃을 수 있다면 그건 내 곁에 있는 동료 덕분이 아닐까요? 가끔 편잔을 주기도,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보다 고마움이 훨씬 큰 동료에게 속마음을 전해봅니다.

From  
리테일기획부 김재홍 주임



To  
소호영업부 박병은 과장

“사회에서 만났던 이들 중  
가장 인간적인 사람”

제가 박병은 과장님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말입니다. 박병은 과장님은 저희 동기들이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친형 처럼 저희를 챙겨주셨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겪는 개인적인 고민까지, 말 그대로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는 과장님께서 더욱 힘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온라인주택 대출을 개발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셨죠. 사람이 한결같기란 쉽지 않은데, 과장님은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늘 똑같이 열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후배들에게 큰 모범을 보이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말씀드리지 못했어도, 제 맘 다 아시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From  
여신영업4부 황영민 사원



To  
채권관리1부 박현우 과장

“부서에 없어서는 안 될  
업무 스페셜리스트!”

일을 처리하는 데 정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겠지만,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분명 그 속도와 정확성이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박현우 과장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규정을 바탕으로 막힘 없이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업무는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하고 느꼈습니다. 또한 모르는 게 많은 후배를 위해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많이 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게다가 과장님만의 유머러스함은 저뿐만 아니라 부서의 활력소 중 하나였고, 덕분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 표현하지 못하던 속마음을, 좋은 기회를 통해 표현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많은 도움 주시는 박현우 과장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 Quiz

## 쉬어가는 퀴즈!

### 다른 그림 찾기

두 장의 그림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5곳을 찾아주세요!



마음이 넉넉해지는 가을.  
퀴즈를 풀며 일상에 여유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홍보부 김원준 사원에게  
(karlos7979@sbisb.co.kr)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다른 그림 찾기



BLANK QUIZ  
(저)(축)(문)(화)(활)(성)

### BLANK QUIZ

각 문장의 빈칸을 채워 단어를 완성해주세요!

- 1 속웃은 누가 보는 웃도 아니고 단지 ( )만을 위한 웃인데. [hint p.5]
- 2 제가 안 ( )인다면 오나 안 오나 확인하며 두리번거리는 착한 아이죠. [hint p.27]
- 3 반면 이순기 주임과 박인성 주임은 ( )양한 색상의 실패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 [hint p.34]
- 4 그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회사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대형 ( )산. [hint p.39]
- 5 향후 대출을 받을 때 금( ) 우대를 받을 수 있다. [hint p.47]

## 저축 어록 #1

음악은 가슴의 약이고,  
저축은 인생의 약이다

